

영월~평창 방림2 도로공사 서울 대보건설 시공권 낙찰


국도31호선 영월~평창 간 도로공사가 본격화된다.

건설업체에 따르면 서울 대보건설은 글로벌웨이가 포기한 영월~평창 방림2 도로공사의 시공권을 이어받았다.

이 공사는 최근 보증이행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고가 실시돼 입찰을 마감한 결과 가장 낮은 306억원을 써낸 대보건설이 낙찰받게 됐다.

국도31호선 영월~방림2 도로공사는 영월군 북면 연덕리와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를 잇는 총연장 11km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,095억 원이다.

하위윤기자



◇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7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실에서 '제7차 운영위원회'를 주재,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.

건설협도회 사무처장

최형규씨 유력



최형규 (58·사진) 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이 대한건설협회 도회 사무처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.

대한건설협회 도회(회장 오인철)는 17일 오전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,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.

이날 운영위원들은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철 사무처장 후임으로 최형규 전 본부장에 대한 임용 동의안을 의결한다.

최형규 전 본부장은 강원도가 추천했으며 대한건설협회에 최종 승인을 받으면 사무처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. 양구 출신인 최 전 본부장은 양구고, 한국방송통신대, 일본오비린대를 졸업했으며 도 글로벌사업단장, 경제정책과장, 지식산업과장,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, 지식산업담당 등을 지냈다.

안은복 rio@kado.net